

친환경정책 없으면 정유기업 없다!

KBCSD,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 개발 ... 환경경영 통합방안 연구

KBCSD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선진 정유기업인 BP(British Petroleum), ExxonMobil, Shell을 환경경영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인 KBCSD(The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3월24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경영환경이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해 정부, 민간, 산업계 등 각계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 추진을 위한 산업환경정책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각계의 역할과 기업의 협력방안 >KBCSD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와 실천과제 3가지를 정리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존 경영프로세스의 환경경영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환경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공헌성과 가이드 개발, 공급기업의 인권경영과 보건·안전경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BCSD는 지속가능경영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제시한 핵심주제와 영국의 SIGMA(Sustainability Integrated Guideline for Management)를 기본모델로 삼고 해외 선진 정유기업인 BP, ExxonMobil, Shell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속적 경제성과를 통한 국가, 사회에 기여가 목표인 BP는 글로벌 환경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기상이변에 미리 대비하며 자원을 개발할 때 지역사회의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ExxonMobil은 환경보호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개도국에 에너지를 제공하며 환경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Shell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 기준을 최초로 수립해 다양성확보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위한 총괄적 조직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 증대에 노력하고, 또 생물다양성 보호와 사회공헌, 준법경영, 보건안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속가능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이란 지속가능발전의 환경, 경제,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이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가치를 포함한 기업 가치를 제고 시키려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오영희 기자>

<화학저널 2004/03/29>